

특집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가?*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국문요약

남북관계는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칠까? 이에 대한 답은 일견 당연히 보이지만 엄밀하게 검증된 사례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구글의 빅데이터를 가공한 '남북관계지수'를 활용하여 남북관계가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통계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분석 결과 남북관계가 우호적일수록 남한 국민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통일의식이 개선되었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하였으며,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응답하는 등 대북인식 역시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등 남한 국민의 안보인식 역시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았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증가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 연령별, 정치 성향별로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친 영향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나 나이가 어

DOI URL: <https://doi.org/10.35369/jpus.14.2.202212.39>

* 본 논문은 2022년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조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을 밝힌다. 논문의 발전을 위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릴수록,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일수록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남북 관계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제어: 남북관계, 통일의식, 통일인식, 대북인식, GDELT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는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거나 관심조차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또는 북한을 어떠한 대상으로 바라보는지 등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및 대북 정책의 기반이다. 게다가 남한과 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은 국제 사회에서도 남한과 북한을 개별 국가로 볼 것인지 혹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이 현재 어떠한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해 왔는지,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남한 사회에서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이 점차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러 설문조사나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¹⁾ 또한,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이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

1) 김영기, 「남한사회의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와 영향요인 차이」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8호 (2018), 707~717쪽.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이론과 각종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것은 여성보다 남성이 통일을 지지하며,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 성향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 따라 일부 다른 경우가 있으나, 보수적인 정치 성향인 응답자일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²⁾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요인이 통일외식 및 대북외식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인구 통계학적 요인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 즉, 한국 사회에서 통일외식을 고양하기 위해 정부나 시민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민족 정체성 외식 변수와 경제적 변수, 탈북자와의 접촉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이 통일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은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정동준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만족하는 응답자일수록 통일을 지지하고, 북한을 긍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³⁾ 김나영은 탈북자와 접촉 경험이 우호적인 대북외식으로 이어져 통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다.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일은 통일외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그나마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남한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행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결정된 인구 통계학적 요인 및 기타 요인에 비교해 볼 때 남북관계 개선은

2)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외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2014년 봄호 (2014), 167~206쪽.

3) 정동준, 「경제평가가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외식조사 설문 결과 분석」 『담론201』 제20권 3호 (2017), 157~195쪽.

4) 김나영,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외식에 미치는 영향: 탈북민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2021), 489~497쪽.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한국 사회의 통일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몇몇 연구들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건이 한국 사회의 통일인식, 대북인식, 안보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⁵⁾ 이들 연구는 남북관계와 통일인식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기보다 주변적으로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김병로는 남북관계와 통일의식에 대해 최초로 포괄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⁶⁾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병로는 핵실험, 무력도발, 구두위협, 정상회담 등 남한과 북한 사이의 주요 사건이 한국 사회의 통일인식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았다. 군사 도발 등 부정적 사건은 안보 불안을 야기해 통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남북 사이의 긍정적 사건은 남한 국민의 안보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병로는 남북 사이의 주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부정적 비중의 수치를 단순히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대표적인 사건 외에도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다

5) 김병로·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1호 (2012); 박균열·조홍제·박동준, 「통일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1호 (2016), 33~38쪽; 박상훈·허재영, 「여론과 대북정책은 조응하는가? 4.27 판문점 선언 전후 국민의식조사의 경험적 연구」 『담론201』 제23권 2호 (2020), 83~113쪽; 허석재, 「세대교체와 북한인식의 변화: 코호트 분석」 『평화연구』 제22권 2호 (2014), 73~112쪽; 장기영, 「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대북 선제공격 대 대북 원조」 『미래정치연구』 제8권 2호 (2018), 33~57쪽; 김진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경제와 사회』 제123호 (2019), 381~411쪽.

6)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제9권 2호 (2017), 157~184쪽.

양한 요인들이 존재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사건을 수치로 전환하여 통계적 방법론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이외에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매년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때 통일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 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시점에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김병로와 같은 단편적인 해석으로,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 남북관계가 미친 영향력만을 식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적, 계량적인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한다.

김병연은 처음으로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기성세대는 정부 성향 등 국내의 정치적 상황이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반면, 청년세대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청년세대의 통일인식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폭넓게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⁷⁾

본 연구는 남북관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개하고, 남북관계가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장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를 소개한다.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와 국가 간에 벌어진 사건을 수치화한 구글(google)의 GDELT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7)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인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구팀,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143~170쪽.

3장은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친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4장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데이터

1. 통일의식조사

본 연구는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 자료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였다.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에 시작되어 2021년까지 15년 동안 총 18,017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통일인식, 대북인식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제공한다. 해당 조사 중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만 나이, 현 거주지,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 정치성향을 포함하였다. ‘통일의식’은 남북통일에 대해 의견이 어떠한지에 대한 ‘통일인식’과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관한 ‘대북인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통일인식 관련 설문 문항으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급성, 통일이 한국 사회와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선정하였다. 대북인식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북한이 어떠한 대상인지,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에 위협을 느끼는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한 것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 값에 따라 값이 커질수록 긍정적인 통일인식, 대북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코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조사 시점에 따라 응답 값이 변한 경우는 같은 의미를 가진 응

답 값으로 통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통일외식조사에서 활용한 설문

	변수	문항 내용	변수 값 (재코딩 전)	재코딩 후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자=0, 여자=1	좌동
	만 나이		설문자의 만 나이	좌동
	현 거주지		서울,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	좌동
	교육수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1. 초등졸 이하 2. 중졸이하 3. 고졸 4. 대재/대졸 이상 5. 대학원 이상	좌동
	소득수준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1. 200만원 미만 2. 200~299만원 미만 3. 300~399만원 미만 4. 400만원 이상	좌동
	직업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수축산업 2. 자영업 3. 블루칼라 4. 화이트칼라 5. 전업주부 6. 학생/무직/기타	좌동
	정치성향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좌동
통일 인식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별로 필요하지 않다 3. 반반/그저 그렇다 4. 약간 필요하다 5. 매우 필요하다
	통일의 시급성 ¹⁾	남북한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호가 좋다	1.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2. 현재대호가 좋다 3.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4.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

	변수	문항 내용	변수 값 (재코딩 전)	재코딩 후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 개인이익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3.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대북 인식	대북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1.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2.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북한대화 가능성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다	1. 전혀 가능하지 않다 2. 별로 가능하지 않다 3. 어느 정도 가능하다 4. 매우 가능하다
	무력도발 가능성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좌동
	북핵 위협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좌동
	북핵포기 가능성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좌동

	변수	문항 내용	변수 값 (재코딩 전)	재코딩 후
	한반도 전쟁 가능성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있다 2. 다소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좌동

자료: 2021 통일의식조사 통합코드부

참고: 1) 2018년까지는 1~4로 응답하였으나, 2019년 이후로는 1~5로 응답하였음. 2019년 이후 응답값은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4. 현재대로가 좋다, 5.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로 구분되어, 1과 2로 응답한 값을 2018년 이전의 1로, 3으로 응답한 값을 2로, 4로 응답한 것을 3으로, 5로 응답한 것으로 4로 대응시켜 분석을 진행함.

본 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의 요약 통계량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체 18,017개의 응답자 중 통일인식과 대북인식 질문에 하나라도 답하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17,542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북한 대화 가능성’이나 ‘북핵 포기 가능성’ 설문은 각각 2009년과 2008년부터 시작된 질문이므로 관측치에 차이가 존재한다. 성별은 남자일 경우 ‘0’, 여자일 경우 ‘1’로 상정했기 때문에 평균이 0.49라는 것은 대략 설문 응답자의 절반이 남자이고 나머지 절반이 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 응답자의 나이는 최소 19세부터 최대 74세로 평균적으로는 42.89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평균값은 3.35로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재학) 사이로 확인된다. 소득수준은 평균적으로 2.90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평균적인 가계 월수입은 200~300만원 사이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 대한 설문의 평균은 2.95로 약간 진보적(2)과 중도(3) 사이에서 중도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인식으로 분류된 설문 중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반반/그저 그렇다(3)’와 ‘약간 필요하다(4)’의 중간 정도인 3.53로 나타났다. 남북한 통일의 시급성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으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3)’에 가까운 2.78로

나타났다. 통일의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에 대한 질문에 대한 평균적인 값은 각각 2.59와 2.10으로 나타나 통일이 자신 개인에게는 별로 이익이 안 된다고 보는 반면 남한에는 다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북인식 중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평균적인 응답은 ‘선의의 경쟁 대상(3)’과 ‘협력 대상(4)’ 사이인 3.37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인가에 대한 평균값은 2.25로 ‘별로 가능하지 않다(2)’에 가깝게 나타났다. 차후에 북한의 무력도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있다(2)’와 ‘별로 없다(3)’ 사이인 2.25이나 ‘약간 있다’에 치우쳐져 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는 ‘다소 위협을 느낀다(2)’에 가까운 1.98로 나타나 남한 국민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1)’와 ‘다소 동의한다(2)’ 사이인 1.73으로 계산되어 남한 국민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다소 있다(2)’와 ‘별로 없다(3)’의 중간값인 2.51로 나타났다.

〈표 2〉 요약 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인구 통계학적 변수					
성별	17,542	0.49	0.50	0	1
나이	17,542	42.89	13.56	19	74
교육수준	17,542	3.35	0.76	1	5
소득수준	17,542	2.90	1.04	1	4
정치성향	17,542	2.95	0.84	1	5
통일인식					
통일 필요성	17,542	3.53	1.15	1	5
통일 시급성	17,542	2.78	0.75	1	4
통일 집단이익	17,542	2.59	0.81	1	4

통일 개인이익	17,542	2.10	0.75	1	4
대북인식					
대북인식	17,542	3.37	1.29	1	5
대화 가능성	15,224	2.25	0.74	1	4
무력도발 가능성	17,542	2.25	0.76	1	4
북핵 위협	17,542	1.98	0.76	1	4
북핵포기 가능성	16,362	1.73	0.81	1	4
전쟁 가능성	14,000	2.51	0.73	1	4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 외에도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이 설문의 형식을 통해 조사된 경우가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최근 시기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된 것은 서울대학교의 ‘통일의식조사’가 유일하다. 또한, 매년 1200명이라는 적지 않은 수를 조사해왔기 때문에 샘플의 대표성과 신뢰성에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매년 동일한 설문을 통해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변화를 추적해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이라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2. 남북관계: GDELT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질문인 ‘남북관계는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객관적인 수치로 변환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호작용을 연구한 국제관계학에서는 국가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위해 사건을 수치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연구해왔다. 대표적인 연구 및 자료로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 Bank)가 있다. 해당 자료는 1948년부터 1978년까지 국가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구분하고, 어떤 사건이 더 큰 파급력이 있는지 서열화하여 수치화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WEIS(World Event/Interaction Survey)는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국가 간 사건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여 정리하고 수치화한 바 있다. 이후에도 KEDS(Kansas Event Data Systems), Gary King 10 Million International Dyadic Event 등의 연구에서 국가 사이의 사건 자료를 축적하고 수치화하는 작업을 발전시켜왔다. 이제까지 언급된 기존의 사건 데이터 연구 기법은 주로 국제적인 신문 매체의 기사 내용을 사람이 읽고 사건 형태별로 직접 분류하여 자료의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국가 간 사건을 신문 기사를 보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은 막대한 인력과 자금 투입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는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국가 간 사건 자료를 기계학습을 통해 빅데이터의 형태로 전환하는 기술이 활용되어 자동적으로 국가 간 사건 자료의 생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벌 검색엔진업체인 구글(Google)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GDELT(Global Data on Event, Location and Tone)이다. 해당 자료는 1979년 이후 최근까지 어떤 국가가(행위국), 어떤 국가에게(피행위국), 어디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어떤 자료보다 더 방대한 국가 간 사건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검색 엔진으로 100개가 넘는 언어의 뉴스 기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거의 모든 사건 자료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글은 전 세계 언어로 발표된 뉴스 기사의 텍스트 자료를 규격화된 데이터로 변환하는 데 기계학습을 활용하여

데이터 생성을 자동화하였다. 국가 간에 발생한 사건의 강도는 Goldstein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 GDELT 데이터는 사람이 뉴스 기사를 직접 보고 분류하는 기존의 국가 간 사건 데이터에 비해 기계학습을 통해 훈련된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생성하므로 객관성 측면에서도 우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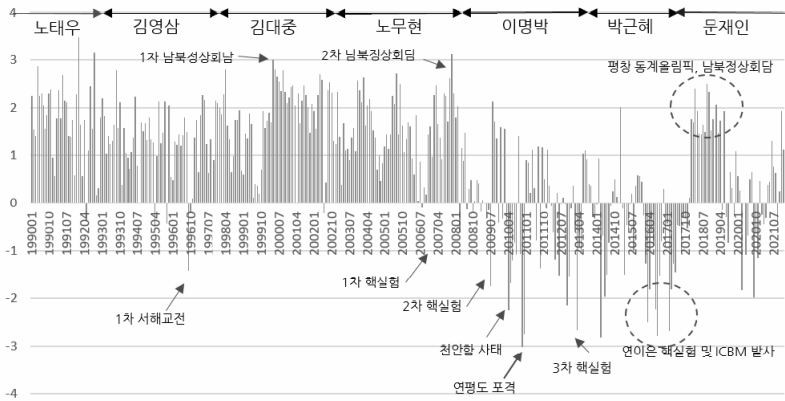
본 연구는 GDELT에서 행위국과 피행위국이 각각 남한과 북한일 경우와 반대일 경우를 수집하였다. 다시 말해 북한이 남한에 행한 사건과 남한이 북한에 행한 사건을 수집하였고, 월별로 평균한 남한과 북한 사이의 사건 수치를 남북관계로 상징하였다. GDELT 자료를 통해 수치화된 남북관계가 남한 국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기에 앞서 이 자료가 실제로 남북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GDELT로 계산된 남북관계 수치가 남북 정상회담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북한의 무력도발이나 북한의 핵실험 등과 같은 갈등의 시점에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확인해보자.

〈그림 1〉은 GDELT로 추정한 남북관계 추세와 남한과 북한 사이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과 같이 보수 정부라 할 수 있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기에 남북관계 지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난 기간이 많다는 것이다. 주요 사건별로 보면 서해 교전이나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한 시기에 남북관계 지수가 급격히 하락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기를 전후하여 남북관계 지수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지속한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남북

⁸⁾ Goldstein(1992)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을 수치화하여 정량화하였고, 이후 이 기준이 수정, 보완되면서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보편적인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 GDELT에서는 Goldstein scale의 개량된 버전인 CAMEO(Conflict and Mediation Event Observation)을 활용한다.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으나 2018년 1월 이후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남북 관계가 급격히 긍정적으로 바뀐 것 역시 GDELT 남북관계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남북관계 지수는 다시 크게 하락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GDELT로 계산된 남북관계 지수가 일반적인 남북관계의 흐름과 적절하게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 GDELT 남북관계 지수와 주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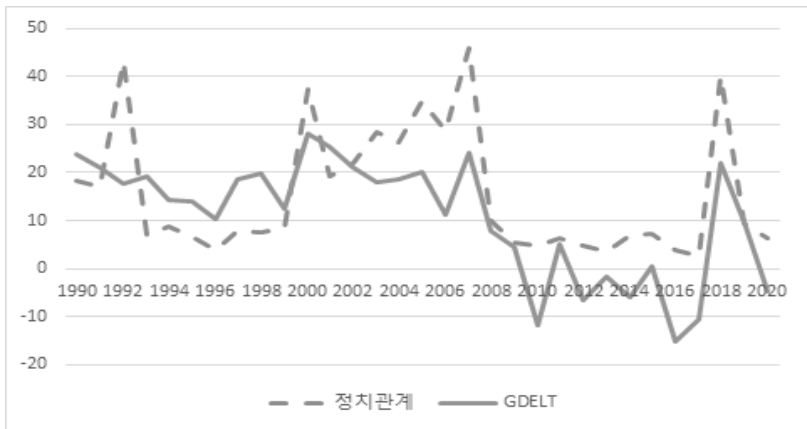


자료: The GDELT Project(<https://www.gdeltproject.org/data.html#rawdatafiles>)의 자료를 저자가 가공함.

본 연구에서 개발한 GDELT 남북관계 지수 이전에도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 정량화한 연구들이 있다. 이들과 GDELT로 추정된 남북관계 지수를 비교해보자. 우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경제, 정치, 사회 분야에서 각각 제도, 관계, 인식 항목으로 구분하여 수

치화하였다. 제도는 남북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통합되어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 관계는 남북 사이의 해당 분야의 통합과 관련된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수치화 한 것이며, 인식은 남북한 주민의 통일 의식조사를 통해 생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치화 한 것이다. 이 중 남북 사이에 발생한 사건과 관련이 높은 지수는 ‘정치’ 분야의 ‘관계’ 항목이다. GDELT로 계산한 남북관계 지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의 정치관계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⁹⁾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두 지수의 추세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지수의 상관계수는 0.65로 두 지수 사이에는 높은 연관관계가 있다.

<그림 2> GDELT 남북관계지수와 남북통합지수 중 정치관계지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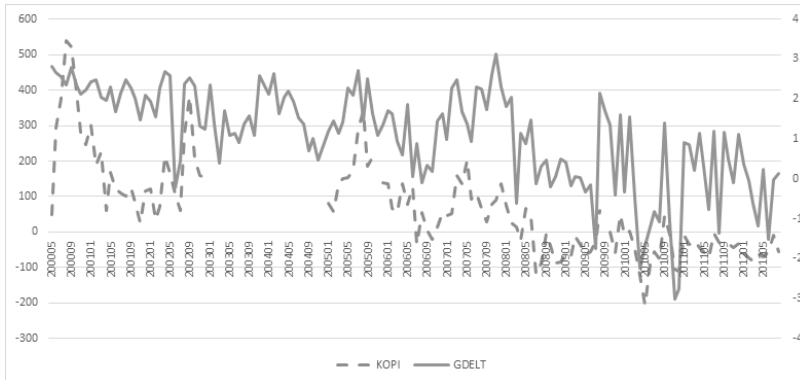
자료: GDELT 지수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 정치관계 지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1 남북통합지수'를 참조.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는 COPDAB의 방법론을 차용하여 한반도 평화지수(KOPI: Korea Peace Index)를 개발하였다. 한양대학교 연구팀

⁹⁾ GDELT 남북관계지수는 월별 데이터이므로 연도별로 더한 값을 해당 연도의 남북관계지수로 설정하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와 비교하였다.

은 연합뉴스를 포함한 국문 뉴스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에 발생한 사건을 사람이 직접 정리하여 수치화하였다. 한반도 평화 지수가 제공되는 기간은 2000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와 2005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일간 자료인 한반도 평화지수를 월별로 더해 월간 자료로 변환한 후 GDELT 남북관계 지수와 비교하면 <그림 3>과 같다. 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오르내림의 추세는 유사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두 지수 간의 상관관계는 0.72로 계산되어, 두 지수 간에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GDELT 남북관계지수와 한양대 한반도평화지수 비교



자료: GDELT 남북관계 지수는 필자가 계산한 수치, 한반도평화지수는 이승철(2003)과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홈페이지(http://aprc.kr/bbs/board.php?bo_table=eurasiahub_1)를 참조함.

참고: 좌변은 한반도 평화지수, 우변은 GDELT 남북관계 지수의 수치를 나타냄.

그 외에도 Jung, Lee and Lee의 연구에서 개발한 지정학적 위험지수 (Index of Geopolitical Risk from North Korea)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개발한 HRI 평화지수 등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수치화한 연구가 존재한다.¹⁰⁾ 지정학적 위험지수는 한반도평화지수와 유사하게 국문 언론보도

에 근거하여 남북관계의 사건을 수치화하였다. GDELT 남북관계지수와 의 상관관계는 -0.73 으로 매우 높은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RI 평화지수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와 유사하게 남북관계를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전문가평가로 구분하여 지수를 구축하였다. 이 중 GDELT 남북관계지수와 관련이 가장 높은 지수는 이벤트 지수로 상관계수가 0.66 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리하면, GDELT로 계산한 남북관계 지수는 남북관계를 수치화한 기존의 지수들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보이며, 이를 통해 GDELT로 계산한 남북관계 지수가 실제 남북관계를 잘 반영하는 객관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통일의식조사와 GDELT 남북관계지수의 시기 조정

남북관계가 한국 사회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두 데이터가 생성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는 주로 7월에 수행되었다. 통일의식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남북관계의 사건은 조사 이전 시점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1달 전까지 6개월 동안의 남북관계가 남한 주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가정하였다. 예를 들면, 2012년 7월에 수행된 통일의식조사의 응답자들은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GDELT로 계산된 남북관계 지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¹¹⁾ 이러

¹⁰⁾ Jung, Seung-ho, Jongmin Lee, and Seohyun Lee, "The impact of geopolitical risk on stock returns: Evidence from inter-Korea geopolitics" *IMF Working Papers*, vol. 2021, no. 251 (2021).

¹¹⁾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인식 주기가 조사 주기와 일치한다는 가정 하에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의 남북 사이의 사건이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인식과 조사

한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수치화하고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3〉 통일의식조사 조사기간

2007년 7월 04일 - 7월 20일	2015년 7월 01일 - 7월 24일
2008년 8월 21일 - 9월 10일	2016년 7월 01일 - 7월 22일
2009년 7월 15일 - 8월 05일	2017년 7월 03일 - 7월 28일
2010년 7월 12일 - 7월 27일	2018년 7월 12일 - 8월 03일
2011년 7월 26일 - 8월 15일	2019년 7월 01일 - 7월 26일
2012년 7월 05일 - 7월 31일	2020년 7월 22일 - 8월 17일
2013년 7월 01일 - 7월 22일	2021년 7월 10일 - 8월 04일
2014년 7월 01일 - 7월 22일	

Ⅲ. 실증분석¹²⁾

1.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계량 모형을 활용하였다. 우선 통일인식과 관련된 4가지 변수(통일 필요성, 통일 시급성, 통일 집단이익, 통일 개인이익)들을 각각 회귀식의 종속변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남북관계의 설정 기간을 6개월이 아닌 12개월로도 산정해보았으나, 결론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¹²⁾ 본 장에서는 남북관계를 GDELT를 통해 수치화 한 지수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 중 정치 관계 지수를 남북관계로 설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한 바, 결과는 두 지수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강건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남북통합지수를 활용한 분석결과는 부록을 참조하라.

수, GDELT로 계산된 남북관계를 독립변수로 상정하였다. 통일인식과 관련된 4가지 변수들은 1부터 4까지 또는 1부터 5까지의 불연속적인 서열로 표시된 수치이므로 순서형 로지스틱(ordered logistic) 모형을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나이, 소득, 교육 수준, 정치적 성향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외에 직업, 현 거주 지역은 고정 효과로 통제하였고, 시간에 따른 영향은 선형 시간 추세(linear time trend)를 활용하였다. 결측치를 제외한 관측치 수는 17,542로 나타났다.

〈표 4〉 남북관계와 통일인식

변수	(1) 통일 필요성	(2) 통일 시급성	(3) 통일집단 이익	(4) 통일 개인 이익
남북관계	0.0459*** (0.0134)	0.0790*** (0.0155)	0.0471*** (0.0142)	0.0504*** (0.0146)
성별	-0.407*** (0.0312)	-0.298*** (0.0345)	-0.368*** (0.0321)	-0.351*** (0.0332)
나이	0.0405*** (0.00143)	0.0342*** (0.00158)	0.0153*** (0.00144)	0.0137*** (0.00150)
소득	-0.0359** (0.0159)	-0.0559*** (0.0170)	-0.0130 (0.0162)	-0.0375** (0.0166)
교육 수준	0.240*** (0.0249)	0.208*** (0.0275)	0.304*** (0.0254)	0.256*** (0.0265)
정치적 성향	-0.280*** (0.0187)	-0.238*** (0.0199)	-0.233*** (0.0190)	-0.257*** (0.0195)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4〉는 남북관계가 통일인식과 관련된 4가지 응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각의 결과를 보여준다.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통일의식과 관련된 모든 종속변수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통일의식과 관련된 응답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숫자가 커질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며(필요성),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시급하다고 느끼며(시급성),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며(집단이익),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응답자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개인이익)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면 남한 국민은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통일이 필요하고, 통일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통일이 개인과 국가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반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변수들의 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의 계수는 통일인식 4가지 변수에 대해 모두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으로 유의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 그리고 집단이익과 개인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변수의 계수 값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을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시급성, 그리고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수준은 통일의 집단이익에 대해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고, 통일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없으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 수준의 계수 값은 모든 통일인식에 대해 유의한 양의 값으로 나타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필요하며, 통일이 시급하고, 통일이 남한과 자신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은 수치가 작을수록 진보적이고 클수록 보수적임을 의미하는데, [표 4]에 나타난 계수가 모든 통일인식에 대해 유의한 음의 값으로 확인되어 보수적일수록 부정적인 통일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과 시급성, 통일의 이익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인식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2. 남북관계가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가 통일인식뿐 아니라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인식조사 문항 중 대북인식과 관련된 것으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포함하여 6개를 선정하였다. 남북관계는 앞서와 같이 GDELT로 계산한 지수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인 대북인식 역시 순차적인 값이므로 순서형 로지스틱(ordered logistic)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통제변수 역시 통일인식 분석에서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대북인식 설문문항 중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 ‘북핵 포기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각각 2009~2021년, 2008~2021년, 2007~2018년의 시기에 조사되었기 때문에 관측치 수에 차이가 있다.

〈표 5〉 남북관계와 대북인식

변수	(1) 대북인식	(2) 대화 가능성	(3) 무력도발 가능성	(4) 북핵 위협	(5) 북핵 포기 가능성	(6) 전쟁 가 능성
남북관계	0.187*** (0,0139)	0.334*** (0,0173)	0.194*** (0,0141)	0.157*** (0,0144)	0.285*** (0,0158)	0.131*** (0,0163)
성별	0.137*** (0,0319)	-0.141*** (0,0352)	-0.147*** (0,0330)	-0.214*** (0,0327)	0.0600* (0,0338)	-0.120*** (0,0370)
나이	0.0108*** (0,00144)	0.0105*** (0,00157)	0.0128*** (0,00147)	-0.00383*** (0,00146)	-0.00483*** (0,00148)	0.0113*** (0,00173)
소득	-0.0463*** (0,0157)	-0.0638*** (0,0177)	0.0470*** (0,0164)	0.00894 (0,0166)	-0.0347** (0,0168)	0.0437** (0,0181)
교육 수준	0.0492* (0,0255)	0.199*** (0,0290)	-0.0831*** (0,0262)	-0.0607** (0,0262)	-0.132*** (0,0269)	-0.0932*** (0,0294)
정치적 성향	-0.216*** (0,0182)	-0.393*** (0,0213)	-0.145*** (0,0197)	-0.130*** (0,0194)	-0.128*** (0,0193)	-0.0459** (0,0220)
관측치 수	17,542	15,224	17,542	17,542	16,362	14,000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GDEL로 구현한 남북관계가 남한 국민들의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표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북관계는 1% 유의수준에서 대북인식(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인식의 응답은 수치가 커질수록 북한을 긍정적, 우호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대북인식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라는 것은 남북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북한을 우호적(도와주어야 할 대상,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식에서도 남북관계 변수의 계수는 유의한 양의 수치로 추정되었고, 해당 문항 역시 수치가 커질수록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므로,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문항의 상관계수는 양의 값인데, 해당 설문은 수치가 커질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므로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북핵 위협과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 한반도 전쟁 가능성 역시 상관계수와 해당 설문 문항의 수치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 남북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남한 국민들은 북한의 핵 위협을 느끼는 정도가 낮아지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안보측면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대북인식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통일인식이 좋아지는 앞의 분석과 유사한 결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긴장이 해소되면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물론 북한에 대한 인식까지 긍정적으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내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은 모두 악화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소득,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이 대북인식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지원이나 협력해야 할 대상보다는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며,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상대로 응답하였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였으나,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낮으며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응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과 대북인식의 상관관계는 소득 수준과 대북인식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확인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북한을 지원 및 협력 대상으로 응답하였고,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며, 북한이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대북인식은 소득수준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으나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과 대북인식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북한을 경계 및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며,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이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보수적일수록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남북관계는 남한 국민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통일이 더 필요하며,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이 남한과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북한을 위협이나 경쟁의 대상보다는 지원과 협력대상으로 응답하였고, 북한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게다가 북한의 핵 위협과 핵 포기 가능성 역시 남북관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 남북관계가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

본 절에서는 남북관계가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혹은 동일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남녀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나이가 젊을수록 남북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보수적인 사람이 남북관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혹은 반대인지 등을 분석한다. 통일인식 관련 질문으로는 ‘통일의 필요성’을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GDELT로 계산된 남북관계 변수에 각각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변수를 곱한 교차항을 기존의 회귀분석식에 넣어 해당 항의 계수값이 유의한지, 유의하다면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검증하여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친 영향이 성별, 연령별, 정치적 성향별로 다른지를 분석한다.

〈표 6〉 교차항 분석 1: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통일인식 분석

변수	(1) 통일인식	(2) 통일인식	(3) 통일인식
성별*남북관계	0.0268 (0.0268)		
나이*남북관계		-0.00441*** (0.000980)	
정치적 성향*남북관계			-0.0802*** (0.0178)
남북관계	0.0324* (0.0194)	0.236*** (0.0440)	0.279*** (0.0532)
성별	-0.407*** (0.0312)	-0.407*** (0.0312)	-0.408*** (0.0312)

변수	(1) 통일인식	(2) 통일인식	(3) 통일인식
나이	0.0405*** (0.00143)	0.0406*** (0.00143)	0.0405*** (0.00143)
소득	-0.0358** (0.0159)	-0.0342** (0.0159)	-0.0366** (0.0159)
교육 수준	0.241*** (0.0249)	0.239*** (0.0249)	0.239*** (0.0250)
정치적 성향	-0.280*** (0.0187)	-0.282*** (0.0187)	-0.280*** (0.0188)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6〉은 남북관계가 성별, 연령별, 정치적 성향별로 통일인식에 미친 영향에 대해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우리의 관심 변수는 ‘성별*남북관계’, ‘나이*남북관계’, ‘정치적 성향*남북관계’이다. 우선 첫 번째 회귀식에서 ‘성별*남북관계’ 변수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남북관계가 통일인식(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으로, 성별에 따라 남북관계가 통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통일의 필요성을 따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남북관계의 영향을 더 받거나 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나이와 남북관계의 교차항 변수의 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와 통일인식과의 상관관계가 양수인 상황에서 나이와 남북관계의 교차항 변수의 계수가 음의 값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을 반대하지만(통일의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응

답), 나이가 어릴수록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젊은 사람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남북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나이가 든 사람은 남북관계의 상황에 관계없이 통일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을 반대하는 경향이 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반대하는 의견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세대가 한반도 주변 정세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은 김병연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 결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통일인식이 부정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젊은 세대일수록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릴수록 남북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젊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허석재는 젊은 세대가 일생의 많은 기간을 경색된 남북관계하에서 보냈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해 왔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이전의 부정적인 경험을 돌이키게 될 정도로 남북관계가 구조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들의 통일인식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세 번째로 정치적 성향과 남북관계를 곱한 값을 관심 변수로 상정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남북관계가 통일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정치적 성향과 통일인식 사이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고, 교차항의 계수 역시 유의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부호를 해석하면 보수적일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보수적일수록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하며, 이러한 성향은 남북관계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뒤집어 말하면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진

보적인 사람들의 통일인식이 보수적인 정치성향의 응답자보다 남북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통일인식 분석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분석한다. 앞서 분석한 6개의 대북인식 설문문항 중 가장 대표적인 대북인식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를 선정하였다. 앞의 통일인식에 대한 교차항 분석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수치와 성별, 나이, 정치적 성향 변수를 각각 곱한 값을 새로운 변수로 놓고 기존의 회귀 분석 모형에 삽입하여 해당 변수의 유의성 여부를 살펴본다.

〈표 7〉 교차항 분석 2: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대북인식 분석

변수	(1) 대북인식	(2) 대북인식	(3) 대북인식
성별*남북관계	0,00271 (0,0275)		
나이*남북관계		-0,00116 (0,00103)	
정치적 성향*남북관계			-0,00934 (0,0172)
남북관계	0,186*** (0,0189)	0,238*** (0,0460)	0,214*** (0,0500)
성별	0,136*** (0,0319)	0,137*** (0,0319)	0,137*** (0,0319)
나이	0,0108*** (0,00144)	0,0109*** (0,00144)	0,0108*** (0,00144)
소득	-0,0464*** (0,0157)	-0,0459*** (0,0157)	-0,0465*** (0,0157)
교육 수준	0,0492* (0,0255)	0,0487* (0,0255)	0,0491* (0,0255)
정치적 성향	-0,216*** (0,0182)	-0,216*** (0,0183)	-0,216*** (0,0183)

변수	(1) 대북인식	(2) 대북인식	(3) 대북인식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7〉을 통해 남북관계가 성별, 연령별, 정치적 성향별로 대북인식에 미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의 결과와 달리 〈표 7〉에 나타난 교차항 변수(성별*남북관계, 나이*남북관계, 정치적 성향*남북관계) 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북관계가 대북인식(북한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상인가?)에 미친 영향은 성별, 연령,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이가 많은 적든,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남북관계가 대북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남북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대북인식이 개선된다는 결과(〈표 7〉의 남북관계 변수의 계수가 모두 양의 값이며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함)는 기존의 결과와 동일하다. 통일인식의 경우 나이와 정치성향에 따라 남북관계가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데, 대북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한국 국민의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지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국인의 통일인식과 대북

인식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였고, 남북관계는 전 세계 언론기사를 기계학습하여 국가 간의 사건을 자료화한 구글의 GDELT에 기초하여 ‘남북관계지수’를 산정하였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 바 남북관계와 통일인식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남북관계가 좋아질수록 남한 국민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통일이 시급하며, 통일이 국가와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사회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올라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한 국민의 대북인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관계가 좋아진 시기에는 북한을 우호적인 대상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북한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을 높게 보며,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북핵 위협 등 안보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었다. 반대로 말하면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일 때에는 남한의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대북인식 또한 악화되고, 안보 불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견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으나 그동안 데이터를 통해 엄밀하게 검증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이를 데이터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남북관계와 통일의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별, 연령별, 정치성향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가 어릴수록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나,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통일의식이 반전이 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일수록 보수적인 응답자에 비해 통일을 지지하나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남북관계가 악화될 경우 통일지지 역시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남북관

계에 영향을 더 받는다.

한국사회에서 통일은 더 이상 ‘우리의 소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북한 주민과의 민족적 동질감이라는 연결 고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실용적인 가치관을 가진 청년세대들에게 통일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어떤 이익이 있는지 홍보하는 등 이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서 긍정적인 통일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의 통일 반대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 개선의 긍정적인 면을 학습한다면 통일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물론 남과 북 이외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더 이상 양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는 남한과 북한이다. 핵문제와 대북제재 등 남한과 북한 사이에 여전히 문제들이 산적해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남한 국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다시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범수 외 공저,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 이승철 외, 『안정과 통합의 정치경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HRI 한반도평화지수』,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9.
- 김나영, 「북한 및 탈북민 접촉경험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탈북민 친밀감과 북한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2021, 489~497쪽.
-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의식에 미치는 효과」 『통일과 평화』 제9권 2호, 2017, 157~184쪽.
- 김병로 · 최경희, 「남북한 주민의 통일의식 비교 분석」 『통일과 평화』 제4권 1호, 2012, 101~139쪽.
- 김병연, 「청년세대의 통일의식」,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 통일대비국가전략연구팀 (편), 『평화의 신지정학』, 서울: 박영사, 2019.
- 김영기, 「남한사회의 남북통일의 필요성 인식의 시계열적 변화와 영향요인 차이」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8권 8호, 2018, 707~717쪽.
- 김진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대북의식 변화」 『경제와 사회』 제123호, 2019, 381~411쪽.
- 박균열 · 조홍제 · 박동준, 「통일안보의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테러학회보』 제9권 1호, 2016, 33~38쪽.
- 박상훈 · 허재영, 「여론과 대북정책은 조응하는가? 4.27 판문점 선언 전후 국민의 식조사의 경험적 연구」 『담론201』 제23권 2호, 2020, 83~113쪽.
- 이내영, 「한국인의 통일의식의 결정요인: 새로운 분석모델의 모색」 『평화연구』 제22권 1호, 2014, 167~206쪽.
- 장기영, 「북핵 해법에 대한 세대간 인식차이: 대북 선제공격 대 대북 원조」 『미래 정치연구』 제8권 2호, 2018, 33~57쪽.
- 정동준, 「경제평가가 통일의식에 미치는 영향: 2007-2017년 통일의식조사 설문결과 분석」 『담론201』 제20권 3호, 2017, 157~195쪽.
- 허석재, 「세대교체와 북한인식의 변화: 코호트 분석」 『평화연구』 제22권 2호,

2014, 73~112쪽.

Jung, Seungho, Jongmin Lee, and Seohyun Lee, "The impact of geopolitical risk on stock returns: Evidence from inter-Korea geopolitics" *IMF Working Papers*, vol. 2021, no. 251 (2021).

Goldstein, Joshua S,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1992), pp. 369-385.

The GDELT Project (<https://www.gdeltproject.org/data.html#rawdatafiles>)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aprc.kr/bbs/board.php?bo_table=eurasiahub_1)

부록

본 부록에서는 남북관계 변수에 구글의 GDELT로 추정한 남북관계 수치 대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치관계 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본문의 〈그림 2〉에서 살펴본 것처럼 구글의 GDELT로 추정한 남북관계 수치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치관계 지수는 관련성이 매우 높다. GDELT가 일별로 남북관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반면 서울대 통평원의 남북통합지수는 매년 1차례 수치가 발표된다. 게다가 남북통합지수의 발표 시점은 연말이므로 7월 (혹은 8월)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통일의식조사와는 시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시차를 반영하여 남북관계를 당해의 정치관계 수치와 이전 해의 정치관계 수치에 각각 50%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더한 값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2017년의 남북관계는 2016년의 정치 관계 수치에 0.5를 곱한 값과 2017년의 정치 관계 수치에 0.5를 곱한 값을 더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치관계 수치로 상정하는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아 본 연구의 강건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부표 1〉부터 〈부표 4〉는 각각 본문의 〈표 4〉부터 〈표 7〉까지와 대응된다. 분석 결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치관계 지수를 통해 남북관계를 설정해도 본문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통일인식과 대북인식 모두 좋아졌다. 교차항 분석에서도 본문과 마찬가지로 통일인식 분석에서 나이와 정치적 성향이 남북관계와 곱한 변수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나이가 어릴수록, 진보적일수록 남북관계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본문의 해석과 동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남북관계를 구글의 GDELT로 설정하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정치관계 지수로 설정하든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는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표 1〉 남북관계와 통일외식: 서울대 통평원의 남북통합지수(정치 관계)

변수	(1)	(2)	(3)	(4)
	통일필요성	통일시급성	통일집단이익	통일개인이익
남북관계	0.00463*** (0.00140)	0.00700*** (0.00150)	0.00482*** (0.00148)	0.00521*** (0.00151)
성별	-0.406*** (0.0312)	-0.297*** (0.0345)	-0.367*** (0.0321)	-0.350*** (0.0332)
나이	0.0405*** (0.00143)	0.0341*** (0.00158)	0.0153*** (0.00144)	0.0137*** (0.00150)
소득	-0.0361** (0.0159)	-0.0565*** (0.0170)	-0.0133 (0.0162)	-0.0378** (0.0166)
교육수준	0.241*** (0.0250)	0.210*** (0.0276)	0.305*** (0.0254)	0.257*** (0.0265)
정치적성향	-0.280*** (0.0187)	-0.238*** (0.0199)	-0.233*** (0.0190)	-0.257*** (0.0195)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2〉 남북관계와 대북인식: 서울대 통평원의 남북통합지수(정치 관계)

변수	(1) 대북인식	(2) 대화 가능성	(3) 무력도발 가능성	(4) 북핵 위협	(5) 북핵 포기 가능성	(6) 전쟁 가능성
남북관계	0.0189*** (0,00140)	0.0526*** (0,00258)	0.0244*** (0,00146)	0.0194*** (0,00150)	0.0347*** (0,00187)	0.0150*** (0,00169)
성별	0.139*** (0,0319)	-0.140*** (0,0352)	-0.147*** (0,0330)	-0.213*** (0,0327)	0.0654* (0,0337)	-0.118*** (0,0370)
나이	0.0108*** (0,00144)	0.0103*** (0,00157)	0.0127*** (0,00148)	-0.00392*** (0,00146)	-0.00489*** (0,00148)	0.0111*** (0,00173)
소득	-0.0478*** (0,0157)	-0.0693*** (0,0178)	0.0456*** (0,0164)	0.00780 (0,0166)	-0.0376** (0,0169)	0.0425** (0,0181)
교육 수준	0.0536** (0,0255)	0.204*** (0,0291)	-0.0783*** (0,0262)	-0.0565** (0,0262)	-0.124*** (0,0269)	-0.0890*** (0,0294)
정치적 성향	-0.215*** (0,0183)	-0.387*** (0,0213)	-0.144*** (0,0197)	-0.129*** (0,0194)	-0.126*** (0,0193)	-0.0455** (0,0220)
관측치 수	17,542	15,224	17,542	17,542	16,362	14,000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3) 교차항 분석 1: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통일인식 분석
 서울대 통평원의 남북통합지수(정치 관계)

변수	(1) 통일인식	(2) 통일인식	(3) 통일인식
성별*남북관계	-0.000679 (0.00272)		
나이*남북관계		-0.000298*** (0.000104)	
정치적 성향*남북관계			-0.00552*** (0.00179)
남북관계	0.00497** (0.00202)	0.0169*** (0.00449)	0.0210*** (0.00548)
성별	-0.398*** (0.0440)	-0.406*** (0.0312)	-0.407*** (0.0312)
나이	0.0405*** (0.00143)	0.0438*** (0.00182)	0.0404*** (0.00143)
소득	-0.0361** (0.0159)	-0.0349** (0.0159)	-0.0364** (0.0159)
교육 수준	0.241*** (0.0250)	0.239*** (0.0249)	0.240*** (0.0250)
정치적 성향	-0.280*** (0.0187)	-0.282*** (0.0187)	-0.217*** (0.0278)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표 4〉 교차항 분석 2: 성별, 연령, 정치성향별 대북인식 분석
서울대 통평원의 남북통합지수(정치 관계)

변수	(1) 대북인식	(2) 대북인식	(3) 대북인식
성별*남북관계	-0.000559 (0.00264)		
나이*남북관계		-8.54e-05 (0.000105)	
정치적 성향*남북관계			0.00212 (0.00163)
남북관계	0.0192*** (0.00188)	0.0225*** (0.00447)	0.0127*** (0.00482)
성별	0.145*** (0.0458)	0.138*** (0.0319)	0.139*** (0.0319)
나이	0.0108*** (0.00144)	0.0117*** (0.00188)	0.0108*** (0.00144)
소득	-0.0478*** (0.0157)	-0.0475*** (0.0157)	-0.0476*** (0.0157)
교육 수준	0.0536** (0.0255)	0.0520** (0.0255)	0.0542** (0.0255)
정치적 성향	-0.215*** (0.0183)	-0.216*** (0.0183)	-0.240*** (0.0277)
관측치 수	17,542	17,542	17,542
직업 고정효과	YES	YES	YES
지역 고정효과	YES	YES	YES
선형 시간 추세	YES	YES	YES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Inter-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perception in South Korea

Kim, Kyooch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Do inter-Korean relations affect South Koreans' perception on unification? The answer to this question seems obvious at first glance, but rigorous studies on this matter are lacking indeed. This study statistically verifies how inter-Korean relations affect South Koreans' unification perception by using the data from 'Unification Perception Survey' of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ter-Korean Relations Index' processed by Google's big data. As a result, the closer the inter-Korean relations were, the more South Koreans responded that unification was necessary and would benefit individuals and the country. In addition, as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d, South Koreans had more favorable perception of North Korea as a possible partner for dialogue and compromise. If inter-Korean relations improve, Korean society's expectations and interests in unification will increase, and it can be expected that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will also improve. Finally, the effect of inter-Korean relations on the unification perception was examined by gender,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While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ter-Korean relations had greater effect on the unification perception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e more politically progressive population. In conclusion, in order to raise expect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improve structural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Inter-Korean relations, unification perception, GDELT

김규철 (Kim, Kyoochul)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북한경제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북한 경제 전반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북한의 거시 경제, 북한의 무역 및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 등이다. 그 외에도 남북경협, 한국 사회의 통일의식, 탈북자의 남한 적응 등에 관심이 있다. 최근 수행한 연구들은 “남북교역과 남북관계의 상호 영향 분석: 남북교역의 평화효과와 정경분리 원칙”(2022), “The Economic Costs of Trade Sanc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2022), “The North Korean Economy seen by Satellite: Estimates of National Performance, Regional Gaps based on Nighttime Light”(2022), “지속된 코로나19와 북한의 대외무역: 2021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2022),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2021) 등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